

곡성 수변관광 명소 '압록상상스쿨' 문 연다

옛 압록초교 부지 다음달 개장 앞두고 시설물 관리·운영 위탁기관 선정 어린이 전용 놀이터·가족 산책로 등 심진·보성강 힐링 체험 공간 마련

곡성군이 심진강과 보성강을 연계한 새로운 관광 명소 '압록상상스쿨'이 다음달 개장한다.

20일 곡성군에 따르면 군은 심진강변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기차마을과 함께 곡성 관광을 이끌 '압록상상스쿨'을 빠르게 다음달 개장을 목표로 시설물을 관리·운영할 위탁기관을 선정 중이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만큼 개장 시기는 유동적이다.

심진강변 관광명소화 사업은 곡성의 여름철 대표 관광지였던 압록유원지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프로젝트다.

폐교된 옛 압록초등학교 부지에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즐기고 놀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에게 꿈과 상상을 키울 수 있는 곳, 관광객에게는 힐링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옛 압록초교 부지에는 압록상상스쿨을 조성한다. 3층 규모의 압록상상스쿨은 1층(799㎡)에 연회홀과 갤러리를 갖춘 홍보·전시공간으로 센터의 품격을 높임과 동시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2층(806㎡)은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실내놀이터를 비롯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다목적 놀이공간이다. 3층(309㎡)은

카페테리아, 소공연장, 전망대, 테라스 등 관광객들의 휴식·문화공간이다. 3층에서 내려다보는 심진강의 수려한 경관은 어른·아이할 것 없이 감동과 추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상스쿨 외부는 23개 코스의 어드벤처챌린지 시설, 50m 규모의 모험용 출렁다리, 115m 규모의 짚라인이 운영된다. 초급자에서 상급자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아이들이 창의적인 체험활동과 모험심을 키울 수 있다. 또 547m의 미니기차 레일이 설치돼 미니기차를 타고 상상스쿨 주변을 돌아볼 수 있다. 미니기차는 빛 동굴, 이집트 피라미드, 중세 기사터널 등 3가지 컨셉트의 터널을 통과하며 흥미진진한 모험을 선사한다.

동화적인 요소를 가미한 물놀이 시설도 준비돼 있어 여름철 어린이들에게 최고의 놀이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압록상상스쿨 인근 수변공간에는 에코힐링로가 조성된다.

아이들이 신나게 즐기는 동안 동행한 가족은 강변을 따라 산책을 하며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배후마을인 압록마을에는 골목길을 따라 마을 연결터널, 담장, 벽면, 유희공간을 활용한 미술 및 조형물 등을 설치했다. 심진강을 가로지르는 예성



심진강과 보성강을 연계한 수변관광벨트의 거점인 '압록상상스쿨'이 옛 압록초등학교에 조성돼 빠르게 다음달 개장한다. <곡성군 제공>

교라는 다리에도 다양한 색채를 부여하고 조형물 등을 설치했다.

곡성군은 압록상상스쿨이 관광객과 마을을 잇는 허브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주민 참여를 통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검토하고 있다. 또 마을환경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수혜를 제공하는 등 창의적인 민·

관 협력 농촌관광모델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침체됐던 압록유원지가 명실상부한 곡성 수변관광벨트의 거점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차마을과 연계한 관광 개발로 지역 주민소득 향상은 물론 지역발전의 성장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순천시·상의, 중 베이징 사무소 설치 문화·관광 분야 교류·기업 진출 지원

순천시와 순천상공회의소는 중국 베이징에 순천 사무소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20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와 순천상의는 최근 베이징사무소 설치와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사무소 설치 업무는 순천시가 맡아 추진할 예정이다.

베이징 사무소는 중관촌과의 창업경제 분야 협력을 비롯해 중국 도시와 경제·문화·관광 등 전 분야에 걸친 교류·확대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베이징 중관촌은 중국 정부의 과학교육부후 전략의 핵심지역으로 최첨단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알려졌다.

순천시는 지난해 1월 허셴 시장이 방문해 창업보육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5월 중관촌 대표자들이 순천을 방문해 교류영역을 넓혔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고흥군, 드론평화지식산업센터 건립 순조...드론거점도시 부상

지상 4층 연면적 9246㎡ 규모 사업비 198억 투입 내년 6월 준공

고흥지역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의 핵심시설인 '드론평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순조롭다.

20일 고흥군에 따르면 올해 초 착공한 '드론평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공사가 한창이다. 이 센터는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의 시발점이자 4차산업 기술 혁신의 핵심 시설이다.

고흥군은 제조업과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사업자를 비롯해 각종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이다.

이 사업은 고흥만 항공센터 일원에 지상 4층 연면적 9246㎡ 규모이며, 국비 125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198억원이 투입된다.

고흥군은 지난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전남도 건설기술심의 및 계약심사, 각종 영향평가, 실시계획인가 등 모든 사전절차를 추진했다. 이어 시공사로 금강건설(주)을 선정해 지식산업센터 착공에 들어갔다.

현재 부지 성토작업을 마무리하고 4월 말까지 파일 공사가 끝나면 5월부터 지상골조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준공 목표는 내년 6월이다.

드론평화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되면 드론기업 입주공간 25실을 비롯한 기숙사 14실, 창업지원 공간



올해 초 착공한 고흥 드론평화지식산업센터 건립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고흥군 제공>

4실 및 기업지원시설 등이 갖춰진다. 내부에는 드론 체험장과 교육장이 포함된다.

고흥군은 지식산업센터를 시작으로 드론 기업 유치를 위해 무인항공기 전문단지 조성도 추진한다.

/고흥=주각중 기자 gjiu@kwangju.co.kr



광양시가 최근 백운산 계곡과 서천 등에 어린 은어 12만 마리를 방류했다. <광양시 제공>

광양시, 백운산 계곡에 은어 12만마리 방류

광양시는 수량이 풍부하고 맑고 깨끗한 백운산 계곡과 하천(광양읍 서천, 봉강면 서천, 옥룡면 동천)에 어린 은어 12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양시는 지난 2004년부터 친환경 자연생태계 복원과 어족자원 증강을 목적으로 지역 토산어종인 은어·참깨·메기·동자개 등 약 352만 마리를 지속 방류하고 있다. 이 행사는 시민들의 수산자원 보존의식을 높이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이번에 방류한 수산어종은 몸길이 6-10cm의 어린 은어로, 방류주변 하천 등에서 성장해 가을(9-11

월)에 산란하며 부화한 어린은어는 인근 바다로 내려가 겨울을 지내고 봄철인 3-5월경에 다시 하천으로 올라온다.

상류에서 서식하는 단년생 어종으로 맛이 담백하고 비린내가 나지 않아 예로부터 임금님 수라에 오른 귀한 토종 어종이다.

채원용 광양시 해양수산팀장은 "5-10월까지 동자개, 잉어, 붕어, 자라, 참깨 등 수산어종을 추가 방류할 계획"이라며 "하천 생태계 보전과 내수면 어종을 보호에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